

# 만남



07

2020  
통권 558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

2020 북한선교대회 열려

올해 6·25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복음통일! 주의 소원, 나의 사명”이란 주제로 북한선교대회가 열렸다. 코로나19사태 등 어려운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6월 3일부터 3주간 수요일 1, 2부예배는 북한동포사랑 기도회로 드렸고, 영락포럼특강, 복음통일퀴즈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21일 주일 1~5부예배는 북한선교 주일예배로 드리고 찬양예배에서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한편 베다니광장에서는 복음통일 씨앗심기 행사와 ‘한국전쟁과 북한선교사역’에 대한 사진전시회가 열렸고, 25일~27일에는 본당에서 구국금식기도회를 가졌다. 온 성도들은 통일의 소망을 품고 복음통일의 일꾼이 되어 허락된 사명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다짐했다. 사진은 복음통일 씨앗심기 행사로 화분을 나누는 모습.

사진 유승현 성도

### 교회표어

이때를 위함이라  
(에스더 4:13~14)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너뿐”이라 하실 때 김운성

**영락칼럼** 04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기도하며 강상진  
06 코로나19와 기독교인의 ‘뉴 노멀’ 윤상철  
08 익숙함과 결별...전염병이 바꾼 세상의 모습 이준영

**특집** 11 ‘빛과 소금’ 교회 본질에 집중 박경수  
14 흠여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 조건희  
18 119대작전...하나 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전병주

**땅끝까지 이르러** 20 자유인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보물 하영민  
22 12년 미얀마 선교, 바이러스도 이겨내야죠 황관중  
23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이노하

**다음 세대** 25 8~9월 여름수련회...영적 근육 키우세요 노대웅  
28 무익한 종을 단련시킨 40년...감사 또 감사 이영숙  
30 우당탕! 온라인 예배...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정세진  
32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광호  
34 온라인 수업 정말 힘들어요 이재향

**영락의 울타리** 37 모이지 못 하기에 더 애뜻한 구역예배 이순옥  
38 교우들 합심 덕에...방역 ‘이상무’ 이종근  
40 온라인을 새로운 선교 공간으로 김동욱  
42 에어컨 두시간마다 환기...‘슬기로운 여름 생활’ 이명춘

**야곱의 우물가** 44 외할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김민지  
46 사랑을 주러 갔다 도리어 넘치게 받았습니다 백한빛  
48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기일혜

**문화광장** 49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양희  
50 갈릴리, 예수님이 공생애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 최승도  
52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박재현  
54 신자 되기 원합니다 박신화

**교회소식** 56 중구 관내 어르신들 위해 ‘실버카’ 300대 전달 외  
59 7월 목회력  
60 편집장 리더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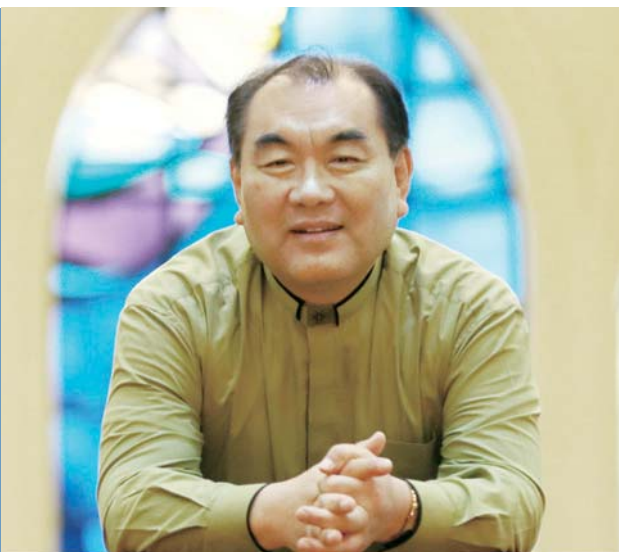
## 표지설명



코로나19로 지쳐있던 우리, 하나님을 더 붙잡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단단해진 마음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우리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싱그럽게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형상화해보았습니다.

일러스트 김인경

## “너뿐”이라 하실 때



김운성 위임목사

몇 해 전 모 노회의 <교사와 제직 사명 세미나>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 후 노회장님의 인사가 있었는데, “기쁜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앞으로 세계 교회를 지도할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 교회가 나서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모두 손뼉을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매우 고무된 것 같았습니다. ‘한국 교회 위상이 이렇게 대단한가? 이제야 제대로 대접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기쁘기는커녕 슬펐습니다.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이 세계적인 축구 강국과 경기를 하는데, 아직 경기가 50여 분이나 남은 상태에서 5 대 0으로 지고 있다고 해 봅시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감독이 “이제 선수는 너뿐이야!”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떠할까요? 그 선수가 실력과 체력이 충분하다면, ‘드디어 실력을 보여 줄

기회가 왔어’라면서 운동장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선수가 감독이 아껴 두었던 선수라고 하더라도, 만약 그의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 1분도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감독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독님, 제 무릎은 다 손상되었습니다. 1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다른 선수를 내보내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수가 한 명도 없다면 어떡합니까? 그는 어쩔 수 없이 절뚝거리면서 출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비웃음을 살 것입니다. 이 얼마나 절박하고 기막힌 상황입니까?

제가 슬펐던 이유는 한국 교회의 상황이 그와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교회가 허약하여 사탄과 맞설 선수가 우리밖에 없다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무릎이 손상되어 있다는 기막힌 현실 때문에 슬픕니다. 목전의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들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도 심각합니다. 분규 중에



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사회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패할 때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대로 지도자들은 자리다툼에 날 새는 줄 모릅니다. 탐욕 때문에 온갖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적 전쟁의 운동장에서 1분이라도 버틸 수 있습니까? 사탄이라는 최강의 적을 맞아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너뿐!”이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통곡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위상이 높아졌다고 우쭐할 상황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등 우상의 선지자들과 맞섰으며, 갈멜산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쳤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뒤를 받쳐줄 선수가 없음을 슬퍼했습니다. 오죽하면 로렘 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기다릴 정도였습니까.

우리는 엘리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목전에 둔 우리에게 엘리야의 절망과 통곡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1분도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울어야 합니다.

왜 절망과 통곡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절망할 때 비로소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뿐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울며 고백하면, 주님은 아무도 없어서 할 수 없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출전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때의 절망은 ‘소망의 절망’이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뒤를 받쳐줄 엘리사와 아

직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이 있음을 알려 주셨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소망은 절망으로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그렇지, 나 말고 누가 있겠어”라고 큰소리치며 나간다면 사탄에게 당할 것입니다. “너뿐!”이라는 말씀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뿐입니까? 그렇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출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히 여기서소서. 주님, 통곡하며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영적 전쟁터에 출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국 교회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더 힘겨운 상황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119대작전은 운동장에 출전할 수 없는 우리 모습에 탄식하면서, 주님께서 손상된 우리 다리를 치료해 주시길 기도하는 영적 장정입니다. 다시 힘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예배당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마침 119대작전은 영락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119대작전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반기에도 계속 영적 전쟁을 이어갈 것입니다. 6월 29일부터 한 주간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를 가질 것이고, 그 후에 이어서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온 성도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의 반환점을 돌아서는 이때, 영락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만남**



##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기도하며

종교적 박해를 피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 대륙에 발을 디딘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을 연상시킨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새로운 세상에 도착한 청교도들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공동체의 율법으로서 헌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 미국의 헌법은 1787년에 탄생했다. 미국 헌법전문은 “우리들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벽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방위를 도모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고, 그리고 우리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미국연방헌법을 제정한다”라고 쓰고 있다. 제정된 지 200년이 훨씬 넘은 미국 헌법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만 수정헌법의 형식으로 조항 몇 개를 추가했을 뿐이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 공산주의의 사상적 공세를 피해 자유 대한민국을 세운 역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나 미국을 건국한 초기 청교도들의 역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다.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의 부국강병을 위해 기독교를 보호했고 한일합방 후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3·1 만세

운동과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워 나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헌법 제정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완전한 서구식 기독교 국가로 건국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5월 31일 임시국회 의장으로서 제1대 국회(제헌국회)를 개원하기에 앞서 목사이던 이윤영 의원에게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부탁했고 7월 24일 대통령 취임식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했다.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역사의 장면들이다.

1948년 7월 17일 제정·공포된 뒤 9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우리 헌법은 개인의 자유 보장과 민주적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서의 인간의 기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공의로운 나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 모든 국민이 평화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라, 국제적인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믿음의 선조들이 세운 나라인 미국은 큰 번영을 일구어 냈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

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자임해 왔다. 그러나 2015년 미국 오클라호마주 대법원이 십계명이 새겨진 기념물을 주 의회 의사당 부지에서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미국 전역에서 인정토록 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으로 미국의 탈 기독교화 경향의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최근의 사태를 겪으면서 미국이 보여 준 모습은 더욱 안타깝다. 세계적인 경제 대국에 걸맞지 않은 낙후된 국민 보건 의료체계, 경찰관의 흑인 폭행 사망 사건에 이은 폭동과 약탈 사건은 과연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보편적 자유와 평등이 살아 숨 쉬는 나라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

불교와 유교적 전통이 지배하던 동양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만 기독교인의 나라가 된 것은 실로 기적 같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근의 반기독교적 입법화 경향이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한 성 평등 이념을 적극적으로 확산하는 법률, 종립 사회복지법인 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률, 군대 내 동성애 옹호 법률, 인공 임신 중절을 허용해 생명 윤리를 훼손하는 법률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반기독교적, 반성경적 법률의 제정 시도가 있고 사회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

30여 년 전 법과대학 기독교학생회 모임에서 현실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는 주제를 가지고 기독교 법률가들이 열띤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렇다 할 해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현실 세계에 발 딛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반성경적 법률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현실의 법률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기에 부족한 부분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해석론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했던 것 같다.

오늘 다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된다.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제정·개정을 통해 반기독교적 입법을 너무 손쉽게 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법률 제정과 개정에 맞서 깨어 기도하며 입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만들어지는 법률이 하나님의 통치원리의 틀 안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교계를 중심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사회 법률을 연구하고 입법 동향에 대응해야 한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래, 후대에 이스라엘의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토착민들로부터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양식을 지킬 수 있도록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말씀의 통치를 거부해 그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서 세상 나라와 섞이게 되는 세속화의 길을 걷고 말았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사람들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당시와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하나님께서 하락하신 이 땅의 자유와 평화, 인간존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땅이 통치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서 실현되고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드린다. **만남**



강상진 안수집사  
중구·용산교구  
변호사

## 코로나19와 기독교인의 ‘뉴 노멀’



지구촌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19로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발생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 혼란이 일어났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반의 위기대응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재택근무, 원격수업, 온라인 예배 등 우리의 일상이 갑작스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독교인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 대공황에 비견되는 심각한 경제위기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봉쇄조치로 급속한 경제침체와 함께 우리의 일상이 다방면에 걸쳐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경제의 총수요와 총공급이 동시에 침체하면서 실물과 금융의 복합 위기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가 없는 심각한 경제위기로 그 충격이 대공황 수준에 버금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3.4%에서 -3.0%로 대폭 내렸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2.4%에서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친 기업 도산과 실업 증가, 디지털화 확산,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와 탈세계화의 가속화로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 및 기업의 리쇼어링(자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 증가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비대면 방식의 소통과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집단적 효율성이 강조된 '대면 문화'가 급속히 위축되고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일상화되고 있다. '비대면 사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앞으로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다양화 및 고도화되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에서 디지털화가 급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문화 등 모든 면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더 유연하게 소통하는 원격근무, 원격진료, 화상회의가 확산되고, 오프라인 종의 쇠락과 함께 온라인 거래가 성장하는 등 디지털 경계가 촉진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통합관리의 확대로 생산·소비·유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하는 방식과 소비 패턴의 변화

이러한 디지털 초연결사회의 확산으로 다양한 플랫폼 기반 온디맨드(On Demand)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반복적인 직무, 위험처리 직무 같은 일자리는 인공지능 기반 로봇으로 급속히 대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 특수형태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규직에도 임금삭감, 휴직, 휴업, 폐업 등 노동시장의 붕괴가 일어날 수 있고, 누구나 비자발적 실업 상태가 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디지털 전환으로 말미암아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도 수반될 것이다. 먼저, 중산층의 구매력 위축과 이에 따른 소비의 양극화 현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새로운 저소득시대에 대응하여 철저한 개인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의 수용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기독교인의 새로운 일상

코로나19로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게 하고 흘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의 교훈을 찾아보자. 노아의 후손들을 지면에 흘으신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들이 모여 힘써 바벨탑을 건설하여 그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기 때문이다(창 11:1~9). 신명기에서도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주리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신 것(신 8:3)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인류는 물질 위주의 이기적인 성장에 집착하여 공유자원인 자연을 파괴하고, 인본주의에 집착하여 하나님 말씀을 경원시한다. 성경 말씀 그대로 코로나19는 이러한 세태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변화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새로운 일상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보다도 온갖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한다. 말씀하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만남**



윤상철 집사  
성동·광진교구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 익숙함과 결별...전염병이 바꾼 세상의 모습



암스테르담 아트 센터 미디어매틱 (MEDIAMATIC)

코로나19는 팬데믹이 되어 전 세계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구촌 수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2020년 6월 5일 현재 누적 확진자는 641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382,867명이다. 확산세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치료제 개발과 백신 연구에 전 세계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로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초불확실성(Hyper Uncertainty)이 지배하는 상황이다.

강력한 전염병은 새로운 특징들이 표준이 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격리·방역경제를 의미하는 ‘큐코노미’(Quarantine Economy) 체제가 자리 잡으면서 오랜 문화와 전통이 바뀌고 있다. 인류 보편의 인사 방법이었던 악수 예절도 사라지고 있다. 접촉을 전제로 한 인사 예법이 사라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중국의 전통 인사법인 공수법을 제안하기도 했고, 영국에서는 찰스 왕세자가 자

신의 양 손바닥을 마주치는 인도식 ‘나마스테 인사법’을 선보이기도 했다. 운동선수들의 대표적인 세리머니인 하이파이브도 경기장에서 보기 힘들어졌다. 아시아에서 반찬을 공유하는 식사 문화도 바뀌고 있다. 중국에서는 둥근 테이블을 돌려가며 식사를 하는 음식 공유 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모두 감염병 위험 때문이다.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식당을 찾는 것을 꺼리게 되자, 급기야 독일의 뮌헨에서는 사람 사이를 유리벽으로 차단해주는 방역 레스토랑(Quarantine restaurant)이 등장했다.

감염병 위험으로 인해 언택트(untact) 체제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부정접두어 ‘un-’을 붙인 한국식 신조어다. ‘비접촉’ ‘비대면’을 의미한다. 언택트는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주문하거나, 접촉이 필요 없는 자동주문 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 모

바일 앱을 통해 생활의 다양한 편의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직장에서는 화상회의 앱을 통해 원격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대학교 등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언택트 체제가 경제, 문화, 생활 등의 모든 영역에 걸쳐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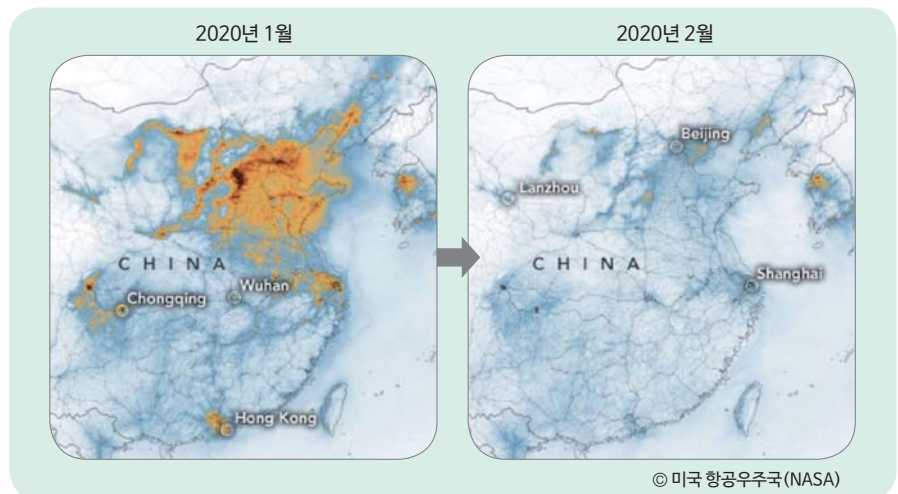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상태이다. 멘탈데믹(정신을 의미하는 Mental과 감염병을 의미하는 epidemic을 합성한 단어)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이제는 신체방역뿐만 아니라 '심리방역'이 중요해지고 있다. 심리방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무기력, 불안 등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4월에 경기연구원에서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47.5%의 국민이 불안감과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뉴스 등을 통해 매일 접하는 코로나19 재난 소식 등은 전염병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일종의 대리외상 증후군을 발생시키고 있다.

코로나19는 자연환경에 역설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일명 '코로나 패러독스'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인류의 활동이 줄어들자 자연환경이 오히려 회복되고 있다. 미국 나사(NASA)에서 찍은 위성사진을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중국 상공의 대기 질이 확연히 깨끗해졌다. 인도의 한 마을에서는 150km 떨어진 히말라야산맥이 30년 만에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지난 30년 동안 스모그 등 매연물질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히말라야가 거짓말처럼 시야에 들어오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동안 인류가 오염시켜 왔던 자연환경이 일시적이거나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해왔던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코로나19 역시 인간의 자연파괴 활동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원래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는 인간의 손이 닿지 않던 자연계 속의 박쥐 같은 숙주를 옮겨 다니며 생존을 이어가던 존재였다. 그런데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훼손하게 되면서 자연계의 숙주 숫자가 급격하게 줄게 되면서,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변이를 일으켜서 인간 감염이 가능케 된 것이다. 또한, 자연 생태계 파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박쥐 등의 야생동물과의 접촉이 많아지면서 변종 바이러스

### ▶ 코로나19 이후 중국 대기질 변화



가 인간에게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간의 면역체계는 이제껏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해 무방비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의 창궐에 대해 인류 스스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국가 및 사회도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일명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코로나 양극화) 문제이다. 경제력의 유무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흑인들이 백인들과 비교해 감염률과 사망률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미국은 사회적 통합과 연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가 사회계급 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의하면 제1계급(35%)은 원격근무 가능자로서 전문직, 관리직, 기술직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제2계급(30%)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경찰 소방관, 의료계 종사자, 배달 근로자 등이다. 2계급은 감염병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제3계급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로서 식당 서비스업, 여행업 종사자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하게 위축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해고와 실직의 위험에 노출된다. 제4계급은 잇힌 노동자들로서 불법이민자, 재소자, 노숙인 등이다. 이들은 감염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위험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신(新)카스트가 도래했다고 표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문제도 있지만, 디지털 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생기는 언택트 디바이드(Untact Divide) 문제도 심각하다. 젊은이들은 언택트에 능숙하지만, 고령층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이나 온라인

뱅킹 같은 언택트 기술에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부족 사태가 생겼을 때 젊은이들은 모바일 앱으로 약국별 마스크 재고 현황을 미리 파악하고 재빠르게 구매할 수 있었지만, 노인들은 약국 앞에 긴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재고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황망하게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속화되는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자연환경이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 인류는 반성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인류 스스로 돌아보고 무너진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미래의 후손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노력해야 한다. 코로나 디바이드로 인해 양분되는 사회갈등의 모습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다. 특히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소외되는 경제적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재난의 시기에는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기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나가길 기도한다. **만남**



이준영 집사  
노원교구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 ‘빛과 소금’ 교회 본질에 집중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의 거센 광풍이 아직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진정세이기는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새롭게 기승을 부리는 곳도 있습니다. 2020년 5월 22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는 510만 6,155명으로 5백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사망자도 33만 2,978명에 이릅니다. 국내 확진자도 1만 1,142명이고, 사망자는 264명이나 됩니다. 전쟁도 아닌데 수십만 명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 닥쳤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이후에도 얼마나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힐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흔히들 우리 시대는 코로나 이전(Before Corona)과 코로나 이후(After Corona)로 나눌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만큼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 생각, 관계를 완전히 바꾸

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예배와 교회의 본질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자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절감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을 위해서라면 자연과 환경, 동물과 식물을 마음대로 남용해도 괜찮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고, 이웃을 이익의 수단으로,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약 1:15)라



는 말씀이 새삼 가슴에 와닿습니다.

저는 과학에는 문외한이라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가 천산갑인지, 박쥐인지, 다른 동물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정한 숙주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의 창궐은 인간이 욕심에 따라 동식물과 자연을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착취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조만간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큰 위협에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둘째로, 예배의 본질을 성찰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새삼스레 묻게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의 방향은 위를 향한 눈길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니 우리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쏠렸던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됩니다. 마치 나 자신이 은혜를 받으면 ‘좋은’ 예배인 양,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것이 ‘성공적인’ 예배인 양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묻게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혹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는 예배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한목소리로 마음껏 찬송하고,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때로는 환희로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를 떼는 예배가 얼마나 그리운지요. 인간의 영혼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바로 그 시간 우리 영혼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해진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이 참으로 옳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고,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왜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되묻고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백해야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과 본질을 성찰하고,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게 됩니다.

셋째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초기 신천지 집회가 확산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교회까지도 마치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인 양 공격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유독 교회에 대해서만 이렇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교회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자기 율타리 안에 갇혀,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하지 못한 결과,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호감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곧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거룩한 공교회(公敎會)로서의 공공성을 상실하고 사사화(私事化)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하게 됩니다.

동시에 교회의 공동체성을 곰곰이 되새겨봅니다. 왜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는지, ‘주님의 몸’이라 일컫는지, ‘성령의 전(殿)’이라 말하는지 말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개인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 한 몸을 이룹니다. 세례를 통해 주님의 몸에 접붙임되고, 성만찬을 통해 영적인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법정 기관이나 가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흩어져 예배드리면서 공동체의 지체들이 너



무 그립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만찬의 신비를 통해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보고 싶습니다. 내 곁에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가족이었음을 새삼스레 고백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예배의 본뜻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되었고, 새로운 감사와 고백과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71)라고 역설적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 광풍이 불자 두려움에 싸인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안타까워하시며 무서운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3~4절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악한 자의 덮에서 빼내 주시고, 심한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 주시니 우리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입니다. 주님의 진실함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입니다.” **만남**



박경수 교수  
장신대 역사신학

##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의 소중함



###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모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부득불 예배를 축소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유튜브 방송으로 온라인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며 무너진 가정예배가 회복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기능에 많이 주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공예배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모이는 일에 노력해왔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삶의 예배에 소홀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반성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교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 실

천과 함께 지역사회의 약자들을 돌아보면서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것을 회복하고 더불어 공예배가 공동체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대체되면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예배가 회복되는 귀중한 전환점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어도 성도들이 이전처럼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21일이면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66일이 지나면 습관이 굳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짐으로 굳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예배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II. 우리는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며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가?

첫째,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공동체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창 1:26).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며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이성·도덕성·영성·사회성(공동체성)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인간 또한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은 하이테크 시대에 문명의 편리함 속에서 더욱 하이테크(접촉)를 원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계 속에 살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호회를 찾고 취미그룹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나홀로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응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 12:14). 우리는 혼자서도 성경 보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 예배 속에서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공동체로 모이는 예배의 연합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 4:9~12). 솔로몬은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의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즉 영어로 표현하면 4P의 축복입니다. 첫째 Power(힘), Protection(보호), Production(생산), Prize(상급)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성도들이 경조사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혼예배와 장례예배에 성도들이 오지 못해 너무도 쓸쓸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에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고 하신 말씀이 성도들의 공동체적인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임을 더 깊이 절감했습니다. 주일예배에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할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과 동시에 성도들과 연합이 되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한자는 가르치는 공동체적인 교회(敎會)가 되기 이전에 교제(交會)의 공동체인 교회(交會)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의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예배가 끝나고 성도 간의 봉사와 교

제를 통해 얻는 영적인 코이노니아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부터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을 전수받는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배우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교육, 둘째는 가슴에서 가슴으로 배우는 분위기를 통해 배우는 정서적인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적인 대상을 보고 행동의 본을 받는 모델교육입니다. 마지막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입니다. 우리는 예배공동체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서로 닮아가며 서로 배우는 모델교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디어 이론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마셜 맥루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달 매체가 바로 전달 내용이다.” 전달하는 내용보다 전달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받고 싶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가 전하는 내용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공동체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처럼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

현장에서 만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따라 천국도 가고 더 깊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넷째, 공동체로 모이는 힘이 세질수록 사회적으로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120명(행 1:15)의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전심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 성령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행 2:46). 그 결과 온 백성의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행 2:47). 초대교회가 지역에서 칭찬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공동체로 함께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릴수록 세상에 끼치는 선한 영향력은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척 스완돌 목사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에 비유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누가 땅에 장작을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 화력은 달라진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공동체의 영적인 화력을 모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전도의 문을 힘껏 열 수 있으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다섯째, 이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체적인 예배는 하늘에서 이루어질 천상의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의 그림자입니다. 영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의 삶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 끝나면 본편이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 아침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은 언젠가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예행연습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9~10).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함께 구원의 주인공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천상의 예배가 오늘 지상에서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연습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본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예배할 날이 올 것이다. 땅에서도 이런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 Ⅲ. 나가는 말

모이는 교회로서 예배당에 공동체로 함께 모여 드리는 구심력적인 예배는 하나님 임재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한 원심력적인 삶의 예배로 흠뻑이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모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 가운데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흠뻑이는 원심력적 예배는 모이는 구심력적 예배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동안 소홀했던 가정예배가 회복되고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되는 흠뻑이는 교회 기능이 회복되어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초대교회처럼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성도들은 온라인 예배의 익숙함에 머물지 말고, 공동체로 모여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어떠한 세상의 시험과 고난도 함께 이겨내며, 성도간에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와 계승이 이루어지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하는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모두 천상 예배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만남**

조건희 목사 \_ 예장총회 예배학교 교장, 예능교회 담임

---

※ 이 글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으로만 예배가 진행될때 한국기독교공보(4월 13일)에 실린 칼럼으로 많은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은 글로 필자의 동의하에 게재합니다.

## 하나 된 신앙공동체를 꿈꾸며… 119대작전으로 영적전쟁 이기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를 통한 확산이 코로나19 사태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신천지 내부에서는 ‘병은 곧 죄악’이라며 감염 증상을 숨겼고,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다가 사회 곳곳에 감염을 확산시킨 후에야 명단을 넘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더욱이 대변인을 통해 ‘신천지도 피해자’라는 식의 발언은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신천지가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이런 반사회적 집단인 신천지 신도 중 다수가 기성교회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기성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가게 되었을까요?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 개인의 영적 상태, 신천지의 속임수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주요한 원인을 꼽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과 공동체성의 약화를 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좋지 않다고 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창 2:18)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하셨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셔서 함께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을 무시하지 않지만, 개인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해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공동체 신앙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진 가운데 시작된 119대작전은 그런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1일) 한 번(1번) 구하는 기도(9)'로 구성된 119대작전은 119일간의 말씀 읽기와 기도, 그리고 믿음을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9대작전 워크북에 담긴 말씀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공동체로 성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매일 같은 본문을 묵상하고 실제적인 행동목표를 설정하여 실천함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정00 권사님은 코로나19로 인해 혼란한 시기에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119대작전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김운성 목사님께서 매일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는 〈119말씀 묵상〉을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고, 각자 정한 행동목표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독려하다 보니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00 집사님은 119대작전을 통해서 기존의 신앙생활을 성찰하게 되었다며 매일 말씀 묵

상과 정해진 성경통독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역장들도 구역모임을 갖지 못하지만 같은 말씀으로 매일 묵상하고, SNS로 그날의 은혜를 나누며 공유함으로써 구역공동체가 더 끈끈해지고 있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가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로 모이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119대작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모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마져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단순히 획일화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119대작전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시고 나아가 이웃과 건강한 신앙공동체를 만들어 가신다면 영적 전쟁에서 신앙공동체의 위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119대작전 이후에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을 힘써 지키며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만남**



전병주 목사  
노원교구  
목양부

## 자유인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물



저는 2019년 11월 복음통일학교를 수료하고 올해부터 자유인에배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복음통일학교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북에서 넘어온 청년들과 사회자가 인터뷰 형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면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 청년이 ‘대학생 정책 참여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탈북자가 왜 여기 참가하는 거야?”라고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비록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은 대한민국이고, 앞으로 나의 미래를 그려가야 할 곳도 이곳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참 놀랐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나 차별과 무지함이 존

재하는 곳이었다니!’ 하면서 말이죠. 또 다른 청년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서 북한에 태어난 것도 아니다”라고요. 심지어 이 말을 한 청년은 저와 똑같이 1986년도에 태어났고 지금은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데, 그가 경험하는 이 사회는 제가 경험한 사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직도 큰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타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하듯, 북한에서 온 이들이 있었기에 내가 속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사회가 더욱더 성숙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차별 없는 평등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차별과 상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자유인 청년들의 인터뷰에서 공통으로 들었던 말이 “그래도 대한민국에 왔더니 좋더라”였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도록 일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강대국이 되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저는 그것이 궁금해서 북음통일학교에 오신 강사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이 결국 우리나라가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는 것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일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온 세계를 향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통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자유인들을 직접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정착을 돕고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만이 내가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유인에배부에서 자유인들을 매주 만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청년부에 있을 때와 다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나누고 똑

같이 삶을 나눕니다. 모두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귀하고 덜 귀하고’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꼭 자유인만을 도와야 한다면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분이 어떤 사람이든 도우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인 분들도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는 시각이 오히려 차별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을 위해서,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자유인 분들을 만나든 혹은 만나지 않는 환경에 있든 관계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보면 제 의지와 상관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조금씩 성숙해졌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하영민 성도  
중구·용산교구  
자유인에배 교사



## 12년 미얀마 선교, 바이러스도 이겨내야죠

미얀마는 5월 말에 우기가 시작됩니다. 비를 재촉하는 듯, 더위는 절정에 달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무더위에 비 지땀을 흘리며 사역을 다니고 있을 텐데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 잠정 폐쇄(Shot 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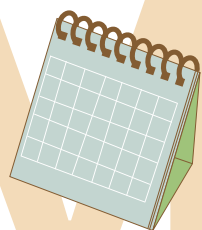
3월 중순,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미얀마 정부는 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미얀마는 한국 같은 선진국 처럼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없는 데다 의심환자를 선별할 기술과 여건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사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과하게 조치하여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여긴 모양입니다. 모든 가게와 식당은 문을 닫거나 방문 손님을 받지 않고 5명 이상 모임을 모두 금지되었습니다. 4월에 열리는 미얀마 새해 명절 축제인 띠잔 물 축제도 취소되어 미얀마에서 경험한 12번의 새해 명절 가운데 가장 조용하고 적막한 명절을 보냈습니다. 교육기관, 종교 시설은 3월 중순부터 정부에서 내린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침에 따라 운영과 예배 모임을 중단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의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고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한두 달 더 연기될 것이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중순부터 모퉁이돌 청년 교회와 은혜복음교회 사역, 모퉁이돌 선교 아카데미 사역, 한국어 학원과 유치원 사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3월에 시작한 3기 모퉁이돌 선교 훈련은 개강 2주 만에 정부 지침에 따라 조기 종료하고 훈련생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모여서 진행하는 사역은 잠시 멈춰 섰지만, 미얀마 영혼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빈민 지역에 개척한 은혜복음교회 성도와 지역 주민들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쌀, 기름, 계란과 같은 기본 식자재와 비누, 휴지 같은 생필품을 주기적으로 지원하



고 있습니다. 또 제가 협력하는 다곤교회협의회 소속 19개 교회의 성도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미얀마 각지에 흩어져서 사역하는 현지인 동역자의 상황도 면밀하게 살펴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선교 활동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선교는 계속되어야

미얀마에서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보안 문제, 비자 문제, 문화와 종교의 갈등, 언어, 기후 등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이라는 전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사역자의 한계를 느끼는 동시에 다시 한번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이러스가 잠시 사역을 멈춰 서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하는 선교사에게 사람을 만나는 일이 나쁜 아니라 타인에게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분명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막지 못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신은 여전히 미얀마, 이 땅에 운행하며 일하시기 때문에 저 또한 작으나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뿐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로마서 8:38~39)



황관중 미얀마 선교사

##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지 않는다

###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자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발생한 상황에서 V국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국경을 빨리 폐쇄했고 하늘과 바닷길 등 모든 길을 폐쇄하며 대처해 나갔다. 특히 지역별 이동 제한과 도로 통제로 모든 것이 정지된 듯했고, 각종 모임이나 행사를 거의 다 폐쇄한 상황이어서 경제뿐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었다. 교회 사역자 대부분이 넉넉하지 않은 사례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도 해야 하는 처지인데 이번 사태로 많은 사역자가 생계 현장에서 일자리를 잃고 휴직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는 계속 이어 나갔다. 인터넷 상에서 각 지체가 서로를 연결하며 예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 그러나 직면한 현실은 가혹했다

이번 사태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국경을 닫았던 이 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종식을 선포하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는 상황이다. 최근의 풍경은 너무나 평온해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하다. 많은 사람이 거리에서 오순도순 무리를 지어 예전처럼 수다를 떠는 모습들이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들의 불안감과 압박감은 고조된 상태이다.

이러한 현실은 교회 사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두 달 동안 정지되었던 상황에서 이들이 받는 경제적 압박은 일반 경제인들보다 더 컸고 한순간에 일 자리를 잃고 집에서 쉬는 지체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멈추지 않는다

비록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오히려 사랑의 나눔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모두 다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서 더 헌신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는 모습이다. 적은 액수에도 서로 감사하는 모습들이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 생각한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를 위로하며 행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된다.

특히 이번 영락교회에서 보여준 사랑의 지원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 서로에게 관심을 두게 하고 희망을 품게 했다. 이번에 지원받은 사역자들 대부분이 현재 지도자 훈련을 받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이고 앞으로 나와 함께 이 현지 교단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갈 일꾼들이다. **만남**

이노하\_V국 선교사

## 8~9월 여름수련회...영적 근육 키우세요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에스더 4:13~14)

‘이때를 위함이라(에스더 4:13~14)’는 2020년 교회표어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안에 간절해지는 시기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서의 여름 수련회가 9월 초나 그 이후로 미뤄졌고, 온라인 수련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서 다시 신앙의 본질과 기본에 충실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육부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더 약하고 각종 질병에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여름 성경학교의 일정을 9월 이후로 늦추었다. 실내에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부로 장소를 정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을 주목하면서 2박 3일의 일정을 1박 2일로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영·유아·유치부】** 매년 7월 초 진행하던 영·유아·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어린이들의 안전과 예배회복의 기간을 고려해 9월 초로 미뤘다. 장소는 우리 교회. 성경학교 주제는 ‘말씀파워! 예! 수! 님!’(에베소서 5:26~27, 디모데후서 3:15)이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배울 예정이다.

**【아동부(유·초·소, CebC)】** 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하고, 가정과 교회의 신앙교육 연계를 지속하기 위한 <가정에서 함께하는 온라인 여름 성경학교>를 7월 25일(토)~26일(일) 진행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와 재미있는 성경공부, English Bible Study, 역동적인 활동과 이벤트를 통해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2020 축구캠프는 안전상 이유로 진행하지 않는다.

**【중등부】** 골로새서 3:2~3의 말씀(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을 통해 ‘Things of Heaven’이라는 주제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땅의 것에 답이 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자 한다. 중등부 캠프는 8월 14(금)~16일(주일)까지 2박 3일간 박달재수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등부】** 마태복음 16:13~20의 말씀 가운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15)’는 주제로 8월 14일(금)~16일(주일)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다. 하나님께서 영락고등부 학생들의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소망하며 금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2단계로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1단계인 8월은 신앙 훈련 중심으로, 2단계인 9월은 매주 주일 활동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베드로부】** 코로나19로 위축된 영적 근육을 다시 회복해 성령의 새 힘 받아 달려가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바이러스 위협 속에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현시점은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수련회를 7월 5일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하며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고 격려하고자 한다. 베드로부는 변화무쌍한 현재 상황에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이를 위한 수련회는 사도행전 3:1~10의 말씀을 근거로 ‘στερεώω(스테레오): 강하게 하라!’ (헬라어로 ‘힘을 얻다’는 뜻)는 주제로 진행한다.

**【대학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로 절제해야 하는 상황을 신앙과 삶의 가장 기본을 충실하게 스스로 다지는 시간으로 삼고자 한다. 올 수련회 주제는 ‘Back to Basics’이며 주제 성구는 신명기 6:4~5의 말씀인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이다. 8월 9일(주일)~12일(수) 교회를 베이스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 수련회 일정

부서	행사명	일시	장소
사랑부	여름 성경학교	9월 초	외부
영아부		9월 초	영락교회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7월 25일(토) ~ 26일(주일)	교회-가정 동시 생방송 진행의 온라인 성경학교
초등부			
소년부			
CebC			
중등부	여름수련회	8월 14일(금) ~ 16일(주일)	박달재수련원
고등부	여름수련회	1단계: 8월 14일(금) ~ 16일(주일) 2단계: 9월 매 주일	영락교회
베드로부	여름수련회	7월 5일(주일)	영락교회
대학부	여름수련회	8월 9일(주일) ~ 12일(수)	영락교회를 베이스로
청년부	전체수련회	8월 21일(금) ~ 23일(주일)	영락교회

**【청년부】** 코로나19로 인해 44차 하기선교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를 대체하여 8월 21일(금)~23일(주일) 교회에서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Re-Ignite(다시 불타오르라!)’이며 주제 성구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사무엘상 3:3)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재점화(Re-Ignite)를 통해 어둡고 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는 청년 세대가 되고자 한다. **만남**



노대웅 목사  
고등부

## 무익한 종을 단련시킨 40년...감사 또 감사

세월이 이렇게...

근속 40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돌아봅니다.

처음 교회학교에서 맡았던 아이가 올해 50살, 고등학생 학부모가 되었다.

지난 2주간 생각이 참 많았다.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보고 나의 스승이었던 제자들을 찾아보고...

7살 처음 교회 갔을 때 선생님은 생각나지 않는다.

국민학교(내 유년시절은 국민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나를 가르친 윤의광 선생님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은 은퇴 목사님이 되셨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내가 아이들의 스승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나의 에너지였고 기도를 가르친 선생이었고 흔들릴 때 나를 견고하게 하는 힘이었고 절망으로 몸부림치는 시간을 만들기도 했다.

유년부 교사로 있을 때였다. 오빠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 조카를 매주 데리고 나오던 분이 계셨다. 주일 아침 먼 거리의 오빠 집에 가서 조카딸을 데리고 유년부에 오셨다. 담임을 맡은 2년 동안 함께 그 가정을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초등부로 올라가고 몇 년 뒤, 아빠가 함께 교회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대학부는 특별한 인연으로 가게 되었다. 1996년 대학부 박광준 장로님께서 후원하셔서 대학생 12명과 태국 비전트립을 다녀왔다. 선교부 추천으로 대학부 학생들과 석 달을 준비해서 떠났다. 그 걸음이 인연이 되어 대학부로 가게 됐고 함께 깊은 신앙 이야기와 삶을 나누고 캠퍼스를 찾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했다. 새벽 2~3시에 전화해서 깊고 어두운 고민을 나누고, 방학이면 같이 여행하며 일상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을 가르치고 싶었고, 함께하며 웃고 울고 이렇게 시간이 지났다. 지금 그들은 너무도 훌륭한 중년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다.

고등부에 있을 때 잠시 만났지만 지금도 가끔 기도하는 아이가 있다. 기관에 있던 아이인데 석 달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곳 담임선생님에게 몇 번 부탁하여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곳을 알게 되었다. 멀리서 얼굴을 확인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 아이가 일하는 곳을 찾아가 멀리 서서 기도하다 돌아오곤 했다. 하루는 그 아이가 다가와 인사를 하며 다음 주는 꼭 교회 오겠다고 이야기했다. 2주 후 베다니홀에 들어서서 “선생님” 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손을 흔들던 아이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아이는 더 어려운 곳으로 갔고 그 이후 기관을 통해 들은 소식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중등부  
북중집경지역  
백두산에서

당시 임영수 위임목사님께서 교육부 교사들이 한 부서에 머무르지 말고 순환하라는 말씀에 따라 유년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를 돌았다. 친한 교사들과 함께 움직이지도 않았고 기도하며 부서를 돌았다. 소심한 나는 부서를 옮길 때마다 힘들기도 했다. 이미 수년씩 혹은 수십 년씩 친숙해져 있는 공동체에 덩그러니 혼자 들어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이는 어쩌면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되는 바탕이 아니었나 싶다. 교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지금은 중등부 때 제자들이 같이 교사를 하고 있다. 제일 큰 보람이다. 40년의 세월 동안 철저한 절망의 시간도 있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여도 튕겨 나가던 아이들. 이제 교사를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했던 시간들. 중등부는 넘치는 에너지로 시한폭탄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 좋다. “ 쌤! ” 하며 아이들이 달려와 안길 때면 온몸에 에너지가 찬다. 교육 주일 40년 근속패를 받으며 생각이 많아졌다. 은퇴할 시기를 놓고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민감하게 떠날 시간을 알게 해주소서 ” 기도했다.

나의 스승이었던 제자들에게, 언제나 지지자였던 남편에게, 이제는 교사의 길을 함께 걷는 아들에게 이 감사패를 드린다. 무익한 종을 좋은 선생이 되게 해준 지난 시간의 모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남**



이영숙 권사  
중등1부 교사

## 우당탕! 온라인 예배...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엄마, 빨리 예배드리고 싶어요!”

“엄마, 제가 다 준비해 놓았어요! 얼른 오세요.”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아이들이 준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들 스스로 이렇게 말하며 준비하는 꿈같은 가정도 있겠지만, 주일 아침 우리 집의 현실은 엄마와 아빠가 아이 둘과 씨름하면서, “옷 갈아입어라, 성경책 가져와라, 장난감 넣어라, 예배시간이다!” 외치는 가운데 우당탕 정신없이 시작된다.

그래도 아이들은 예배가 시작되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신나는 찬양 인도에 맞춰 열심히 울동하며 목청껏 찬양도 부르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기도드린다. 물론 둘이 함께 찬양하다가 서로 “네가 먼저 부딪쳤네!” 하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둘째는 “엄마아빠 예배, 오빠 예배도 모두 같이 드릴 거야!” 고집을 피우다 정작 자기 예배 때는 지쳐 눕는 웃지 못할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모두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고 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였음을 느끼는 하루하루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감사한 것은 온 가족이 모두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받은 은혜를 서로가 나누고, 아이들도 엄마와 아빠의 예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말씀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매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해주시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부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또 매주 예배 링크와 함께 문자로 심방해주시는 담임선생님들의 노력 덕분에 이 시기에도 아이들이 매주 예배드리며 믿음이 성장해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

매주 토요일 교회에는 갈 수 없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센싱 더 스토리 가족 주말학교’를 통해 가족이 매주 함께 활동하면서 가정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해볼 수 있었고, 함께 119대작전을 실천하며, 더 많이 아이들과 찬양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어려움의 이 기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된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엄마와 아빠의 부족함을 많이 느끼며 아이들에게서 오히려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도 마스크를 보내요! 의료진을 위한 편지를 쓸까요? 우리도 무언가 도움 방법을 찾아봐요”라는 아이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던 엄마 아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다. 어려움의 때인 바로 지금이 아이들과 함께 사랑을 전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야, 은우야.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희들이란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섬기면 그 길을 이끄시는 것같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아가자 쿠나! 사랑해!”

이 모든 상황 또한 주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아이들 모두 예배당에서 다시 모여 예배드릴 날이 얼른 오기를 기대해 본다. **만남**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세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주님 보고 계세요.  
이 모든 것 주의 계획 아래 있죠.

주님만을 나 바라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시니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 초등부 예배에서 부른 “주의 뜻을 따라갑니다” 찬양 중에서 -

정세진 집사\_종로·성북교구



## 평범한 일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스크가 가정마다 마련돼 있고, 예배당·사무실·엘리베이터·경비실을 비롯하여 주변 곳곳에 손 세정제가 비치되는 등 개인위생을 위한 제품이 우리를 둘러싼 것입니다.

회사에서 잠깐 쉬는 중의 대화에 어젯밤 드라마 내용보다 건강 이야기가 앞서 나오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고, 아침에 가장 먼저 챙겨보는 뉴스는 프로야구 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업무를 위한 미팅에서 인사말처럼 쓰이던 미세먼지 농도의 자리 역시 코로나19가 대신한 지 오래입니다.

시야를 주변으로 넓혀 보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탓에 보건소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를 하면서 관련 애플리케이션의 오류와 심심함을 토로하는 지인이 있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쇼생크 탈출’에 성공한 것을 SNS에 올리고 축하를 주고받는 등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영락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모습을 매주 마주합니다. 체온측정을 위해 성도들이 줄 서서 팔을 내밀고, QR코드 스캔으로 ‘뽁’ 소리가 나면 교회 입장이 허락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서도 새로운 일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어르신들이 사탕 포장을 벗기는 바스락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익어가는 벼처럼 고개가 떨어질 때면 깨워주던 알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찬양하다 높은음이 나오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읊조리게 되는 것도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료진을 향해 고마움을 표하는 ‘덕분에’ 캠페인이 이어지는 등 우리 사회에서는 그간 보기 드물었던 현상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임직원들과 ‘덕분에 챌린지’에 참가했던 한 기업인은 “세계적 재난에 맞서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 덕분에 오늘도 유지되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한 감사하다”라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그간의 평범한 일상이 무료한 듯 보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누린 감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분리를 위해 집 앞에 잠시 나갈 때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고, 흡시 모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를 쓰고 감기를 피하려고 노력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마음 편히 식사하고, 장소 제약 없이 놀러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설정을 해제하기 전까지 쉴 새 없이 날아드는 확진자 관련 문자를 받는 것이 조금은 귀찮았지만, 가족들과 주변 분들이 별 탈 없이 지내는 것도 감사의 제목으로 부족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놓고 그 결과가 매일같이 나타났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도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와 공동체도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을 귀히 여기라는 말씀을 들어왔음에도 매 주일 경험한다는 이유로 체감도가 덜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속담처럼 몇 주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부서원들에게 “오늘 성경공부 모임은 쉽니다”라는 카톡을 보내면서 만남의 기회가 줄어든 것이 개과천선의 계기가 된 셈입니다.

이번 사태를 거치면서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취업의 길이 막혀 스스로 ‘코로나 세대’라고 지칭

하는 20·30세대를 보고 있으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간 대한민국 기간산업 현장과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로 지냈지만, 감사함을 잊어버린 탓에 돌아보지 못했던 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눈에 밝힌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청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47만 6,000명 줄어드는 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 IMF 사태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하락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결혼과 내 집 마련의 꿈이 시드는 등 도전이 아닌 포기가 일상으로 굳어진다는 우려마저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그쳐 “아멘” 한마디 하는 것으로 그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불태우는 여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만남**



나광호 성도  
강서·구로·양천교구  
청년부 로템나무

영락중학교 교목 홍만우 목사

## “온라인 수업 정말 힘들어요 복음적 내용 들어가면 민원 쏟아져”

“위기는 기회입니다.”

영락중학교 교목이자 종교 과목 교사인 홍만우 목사님을 만났다. 요즘 많이 힘드시지 않느냐는 첫인사에 목사님을 그렇게 답했다.

코로나19 시기에 어느 학교 어느 과목인들 어렵지 않을까마는, 특히 종교 과목은 온라인 수업이 무척 힘들다고 한다. 그 어떤 콘텐츠도 없는 허허벌판 위에서 영상제작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영상제작에 서툴기만 했던 홍 목사님에게는 그리 녹록지 않은 작업이었다.

**코로나19 이전의 영락중학교 종교 과목 수업 진행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영락중학교 학생들은 개설되어 있는 종교와 환경, 두 과목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물론 총학생 수 650여 명 가운데 640여 명이 ‘종교’ 과목을 선택하기는 합니다. 타 종교 및 개인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 수는 약 10여 명쯤 됩니다. 전교생 중 1명이 선택한다 해도 수업은 진행합니다. 기독교학 교과 해도 종교를 강조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경을 과목으로 가르치는 수업은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종교를 강조하는 수업이 아니어야 하며 주입식 교육은 더더욱 아니어야 합니다. 영락중학교에서 종교 수업과 예배는 별개입니다. 종교 과목은 각 학년 각 반에서 1주일에 1회 45분 수업을 합니다. 예배는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 매주 수요일에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업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 어렵습니다. 기획도 그렇지만 내용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복음적, 기독교적으로 제작하면 기독교학교라는 것에 반감을 품는 비기독교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총체적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업을 복음적으로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 우리 학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립 기독교학교입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기독교학교를 세울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뜻한바 목적으로 세우셨지만, 오늘날의 사립 기독교학교의 환경은 본래의 의도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보수



적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각은 모든 기독교학교의 교목들을 어렵게 합니다. 영락중학교 오프라인 수업도 일상적인 종교 수업 방식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물론 찬양, 기도, 성경 이야기도 하면서 에둘러 성경 게임 결들이기 등 여러 방법으로 열린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학년 신입생의 온라인 수업은 학교도 선생님도 대면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화면 속 일부분만을 보면서 진행하는 종교 수업에 혹시라도 부분 전달되어 왜곡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왜곡이 장기적인 기독교 교육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이 시작된 지 몇 주가 지났는데 요즘은 어떻게 수업 진행하시나요

교목의 역량에 따라 수업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호흡하며 진행하느냐가 이번 코로나19 이후의 변수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를 발휘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교목들의 사명입니다. 그 방법 안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복음을 전파해 가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1학년 신입생을 위한 온라인 수업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락중학교는 온라인 상황에서는 종교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교목도 대면하지 못하는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혹여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학

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학교장(조용철 장로)의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종교 과목 대신 ‘생활과 인성’이라는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첫 수업에서는 학교의 교훈과 교화, 설립이념, 1학년 교실 보여주기, 담임선생님의 인사와 모습 등 학교 소개와 ‘중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팁을 주어, 정상적으로 등교했을 때 어색함 없이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는 목사가 있는 사립 기독교학교임을 알려주고 성경적 가치 안에서 사랑, 기쁨, 정의, 협력, 나눔, 봉사 등 일반인에게도 필요한 가치를 교육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둘째 수업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가수와 음악 선생님이 조화를 이루어 재미있게 꾸며 교가 배우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지나간 ‘신앙수련회’ 영상 속에서 선배들의 개인기, 교사들의 노래, 전교생이 모두 나와 환호하는 모습 등, 마치 방송에서의 음악프로 같은 그림 속에 하나님을 내보이는 신앙수련회 행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부활절 무렵에는 ‘부활을 읽어드립니다’ 코너를 만들어 뜻을 같이하는 6개 학교(영락중·고, 송실고, 정신여고, 명지중, 영락의료과학교) 교목들과 협력해 만든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을 통해 성경 이야기, 부활 이야기 등을 보여주며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의미 부여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사 여섯 분이 출연해 계란을 직접 삶으며 부활절의 의미를 설명하는 ‘쿡방’ 영상 수업도 있었습니다.

### 온라인 수업을 본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폭발적인 반응과 긍정적인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도 어서 학교에 가고 싶다는 반응들이었습니다.

### 코로나19 전과 후의 목사님의 생각과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무런 콘텐츠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네 번의 온라인 수업 영상은 성공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전에도 열린 수업을 해왔지만, 이번 상황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경험했으며 이것들을 통해 학생들과의 또 다른 소통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 그대로 학생들에게 쏟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다 하지만 ‘위기’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기회’라 생각하며 모든 교사가 애쓴 보람에 성과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장기적으로 기독교학교가 조금 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며 이 수업이 복음 전파의 빠른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인 노력 보태겠습니다. **만남**

---

홍만우 목사님은 2014년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여 2015년 9월부터 영락중학교 교목으로 사역 중이다. 2016년 영락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교회에서는 고등부 바울성경반 강사로 섬기고 있다.



## 모이지 못 하기에 더 애뜻한 구역예배

지금까지 10여 년간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는 저는 생소한 구역으로 파견된 구역장이었습니다. 이화여대 건너편 산동네로, 대흥동 사거리, 서강대 뒤편 비좁은 골목에 위치한 미로와 같은 주택지였습니다. 주소를 들고 진땀 나게 찾아야 하는 난(難) 코스였습니다.

유독 생각이 나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평소에 함께 교제했던 구역이 아니었기에 구역 식구에게 다가가기도 서먹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대장암 수술을 세 차례나 받으셨고, 그래서 그런지 경계의 눈빛까지 보이시는 부드럽지 않은 성품의 할아버지 성도님이셨습니다. 게다가 부인 권사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이 안 좋으셨고 요양사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힘든 가정이었습니다. 환자 심방이 그 어떤 심방보다 우선이었기에 다른 가정보다 좀 더 세심하게 섬겼습니다. 그 가정에서 구역예배를 드리게 된 첫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첫 심방 때 저는 가정식 오찬을 준비해 갔습니다. 항암치료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셨던 할아버지 성도님께서 잘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큰 기쁨이 있었으며, 매달 새로운 메뉴의 음식을 준비해 가서 구역예배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힘든 몸을 이끌고 택시를 타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행복한 구역예배는 재개발로 인해 다른 구역으로 이사 가기 전까지 이어졌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또 한 가정은 두 아이를 가진 30대 초반의 성도님 가정

이었습니다. 과중한 업무의 연속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안타까워하며 예배를 사모하던 성도 내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으로 우뚝 선 가정을 보면서 흐뭇하고 기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성도님은 집사 직분을 받으시고 상담부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연소로 구역예배에 참여했던 꼬마는 소년부로 성장해 믿음의 재목으로 잘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어쩌다 마주치면 그때 당시의 저의 구역장 모습을 기억하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덕에 구역장으로서의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대심방을 서로 청해서 늦은 시간까지 피곤함을 뒤로 하고 심방을 다니던 때가 참 그림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요즘, 구역예배를 더 사모하게 됩니다. 또 구역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사정상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정 구석구석에 『만남』을 들고 가고 싶은 마음도 큼니다.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드릴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만남**



이순옥 권사  
마포·영등포교구 62구역장

## 교우들 합심 덕에 ... 방역 '이상무'



코로나19는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하여 감염병 위기관리의 최고 단계인 심각에 이르렀으며, 7개 조항의 방역 조건은 종교집회에 족쇄를 채워 교회 문을 잠그게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월 1일부터 교회 출입을 통제하며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다가 4월 12일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방역 조건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지금까지 주일 예배와 수요2부기도회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교회의 코로나 방역 대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 행정처 운영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어, 행정처장이 방역담당관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본부'를 발족시키고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영락교회의 체계'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을 작성해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서울시 지자체와 정부가 종교집회를 대상으로 발표한 행정 조치인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방명록 작성, 손 세정제 비치, 사회적 거리 두기, 식사제공 금지와 교회 소독 등 7가지 수행 조건을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중근 장로  
동대문·중랑교구  
행정처장

우리 교회는 자체적인 방역과 예방을 위해 매주 이틀에 걸쳐 교회 전역을 방역 및 소독했고 2주마다 전문 방역업체를 불러 다시 방역했습니다. 가장 문제 되었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2,500석 수용의 본당은 500석(20%)의 수용 좌석을 지정했으며 본당 외

에 벤엘(80석)과 베다니홀(200석)도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조치했습니다.

### 다 함께 싸워준 코로나 전쟁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 값이 요동치기 시작했으나 교회 일에 열심인 집사님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며 수 소문해서 최적의 가격으로 마스크를 상당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공급 과정을 찾아 제조 공장까지 방문했고 본인 차량으로 배달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해 주었습니다. 또 발열 확인에 필요한 체온계도 당시 이미 품절에 가까운 상황이었지만 이 역시 집사님의 주선과 도움으로 행정처의 팀장을 비롯한 직원 7~8명이 동시에 공급업체에 전화해서 다수의 체온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처는 코로나 방역과 예방을 대비해 교회 내 98곳을 선정해서 곳곳마다 손 소독제를 비치했는데 소독제를 공급하는 집사님이 어느 날 말 없이 상당량의 세정제와 소독제를 놓고 갔고, 또 다른 집사님도 소독제와 손 세정제를 다량으로 제공하면서 다 같이 코로나를 이겨 보자고 격려했습니다.

교회 출입자의 방명록 작성은 사실 가장 힘들었던 작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해 혹시나 발생할 역학검사 시 자료 제출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전도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님과 안수집사님과 장로님들이 수요기도회 2부를 포함한 매 주일에 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정문, 남문과 주차장에서 말없이 자진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100여 분이 필요한 그 손들을 자진해서 내밀어 말없이 섬기셨습니다. IT미디어부는 좀 더 빨리, 더 손쉽게 방명록을 작성하기 위해 QR코드를 제작하고 전 교우들에게 배부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 교우들께 깊은 감사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스스로 거리를 띄워준 교우들, 혹시나 교회에 출석하면 부담이 될까 봐 스스로 댁에서 인터넷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 교회에 출석하고 싶으나 차마 출석하지 못해 평일 교회 문 앞을 배회하면서 교회 뜨락과 교회 기둥을 어루만지며 돌아서는 교우들, 어려운 시국이라 교회 재정이 혹시나 부족하지는 않을지 말없이 온라인 통장으로 감사헌금하는 교우들, 모두 다 믿음의 소산이며 나눔의 실천입니다. 이렇게 자진해서 솔선수범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교우들 덕분에 우리 교회는 코로나 19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더 큰 감염병이 다가올 수 있다고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방역 대책을 통해 행정처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마스크, 체온계와 소독제 및 손 세정제 등을 최대한으로 적정량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QR코드를 이용한 출입 관리 시스템 개발을 포함한 행정 전산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 보여준 교우들의 협조와 솔선수범을 통해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행정처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수고하는 교직원들과 소독과 청소, 경비 등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과 묵묵히 협조해 주신 교우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남**

## 온라인을 새로운 선교 공간으로



###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선택

다른 많은 교회도 그러하듯이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면 예배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영락교회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전개되는 모습은 마음 아프고 안타깝기만 한 상황 그 자체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이웃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생각했기에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당 회중 예배라는 기존의 예배 형식을 잠시 내려놓고 정부의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해 왔다.

전염병이 무서워서 혹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두려워서 예배당 예배를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주일에 선(善)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라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는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김동욱 장로  
서초교구  
고등부 부장

### 코로나19 사태를 새로운 기회로 삼으려면

잠깐 멈추어 서면 끝이 보일 것으로 생각했지만, 한 해의 반환점에 도달했는데도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발생 이전의 교회 모습으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기회다”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결코 그 기회는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하겠으며 대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변화된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 비로소 코로나19 사태는 우리에게 제대로 된 기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새롭게 대두되는 예배 환경 속에서

코로나19 사태 초기, ‘온라인 예배’라는 처음 겪어보는 환경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며 예민해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많은 성도는 온라인 예배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의 병행이 길어질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신앙이 아직 깊이 못한 성도들이나 일부 젊은 성도들은 현장 예배를 기피하고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를 지울 수 없다.

공기 중 전파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기에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기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그러한 염려는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 교회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고민해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는 교회 모임이 예전처럼 활기차게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들이 계속 제기된다.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각 부서의 온라인 회의, 주일학교 온라인 교육도 이제는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많은 성도가 함께하는 모임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구

체적 비전을 공유한 소그룹들의 적극적 활성화가 많이 요청된다. 아울러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이 되어 버린 온라인 공간에 눈을 떠야 하며 이 공간을 새로운 선교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지금까지의 미디어 사역이 홍보 위주의 사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뚜렷한 선교 목적과 전략을 가진 사역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분위기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신앙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고민 속에 기존의 교회 사역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예배와 교육, 선교와 전도, 목양, 사회봉사 등 지금의 사역방식에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처음 경험하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지만 조기에 침착하게 극복하며 대응했던 교회 행정시스템도 앞으로 또 다른 변종 바이러스의 습격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에 상황 변화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기도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구하며

예상치 못한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교회에 있어서 기존의 사역방식과 고유기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다면, 자칫 교회 사역의 본질적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기에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체하지 말고 변화된 현실에 맞춰가는 발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어쩌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앙은 교만해진 우리가 창조주를 배반하고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아닐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만남**



## 에어컨 두시간마다 환기... ‘슬기로운 여름 생활’



무덥고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몸이 쉽게 지쳐서 일의 능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름철을 무사히 지내기 위한 건강관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명훈** 안수집사  
노원교구  
의료선교부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첫째, 식사 잘하기

매끼 먹는 규칙적인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부터 일을 왕성하게 하는 청장년들과 그리고 어르신들 모두 식사를 통해 성장하고 활동하고 생활하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기운이 없다는 이유로 여름철 보양식을 찾아 다니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칼로리로 준비된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에 더 좋습니다.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신앙을 바르고 굳게 하듯이 말입니다.

### 둘째, 물 충분히 자주 마시기

더운 여름에는 몸의 체온을 36.5℃~37.2℃로 유지하기 위해서 체내에서는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땀도 많아지고요! 체내 물의 요구량이 더 높아져서 평소보다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할 때나 몸을 움직여서 일할 때는 갈증이 없더라도 물을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의 특별한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평소 일상에서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 셋째, 더위 피하기

필요한 일은 해야겠지만, 뜨거운 땡볕에 몸을 노출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땡볕에 나가야만 한다면 양산이나 차양이 있는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자외선차단제(선크림)를 충분히 발라서 뜨거운 열기와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몸에 딱 끼는 옷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여유 있고 헐렁한 옷 입기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 넷째, 에어컨 사용과 냉방병 주의하기

날씨가 더워지면 실내 에어컨을 사용하게 됩니다. 에어컨을 켜면 시원하지만, 실내공기가 건조해져서 기관지 점막이 마르고 섬모운동에 장애가 와서 면역저항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SARS-CoV-2)도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여름에도 코로나19의 집단발병 가능성이 예측되어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시대 에어컨사용법'을 제정해 발표했습니다.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실내공기가 재순환되고 바람으로 인해 비말이 더 멀리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사용하되,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하고, 환

기할 때는 가급적 자연 환기하며, 기계 환기할 때는 외부 공기 유입량을 충분히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를 너무 춥지 않게 25℃ 이상으로 유지하면 냉방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손 씻기와 마스크 쓰기

일반적으로 세균과 곰팡이는 여름철에 잘 자랍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개인위생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손 씻기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손 씻기는 폐렴/호흡기 질환과 설사/소화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사용 전·후, 식사 전·후, 음식물 요리 전·후, 사람을 만나기 전·후, 귀가 후에 손을 씻습니다. 예배드리기 전·후에 손을 씻어도 좋습니다.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는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와 다른 특성으로 인해 여름철에도 지역사회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이 기본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남**

## 외할머니를 하나님께 보내드리며

황금연휴가 시작된 지난 4월 30일, 모든 것을 예비하신 듯 가장 좋은 날 외할머니는 하늘나라로 가셨다. 최근 3년 정도 많이 편찮으셨던 할머니는 치매까지 걸리셔서 많은 일을 잊어버리셔도 하나님만은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불평 불만 없는 예쁜 말만 하셨다.

“예쁜 사람 왔구나, 내가 누워있어서 미안하다” “음식이 없어서 어떡하니, 고맙다 이렇게 와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장례비용을 보며 돈 없으면 장례도 치르기 힘들겠구나. 끊임없이 들어오는 화환과 방문해 주시는 조문객을 보며 그저 베풀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할머니가 정말 자녀들을 잘 키우셨구나. 할머니가 하늘에서 4남매를 보며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겠구나. 3일 내내 각자의 엄마 아빠 옆에서 같이 밤 지새우며 할머니 곁을 지키는 나를 포함한 손자손녀 6명을 보며 우리가 꽤나 많이 컸구나....



김민지 성도  
종로·성북교구

“남에게 후하라, 후하되 아껴 써라, 아껴 쓰되 인색하지 말아라.” 할머니가 엄마에게 늘 하신 말씀이다. 많은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고 나누기를 좋아하셨던 우리 외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1935년 함경남도 흥남시에서 맏딸로 태어난 할머니는 총명함과 출중한 외모를 갖추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가정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할머니의 삶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 보혈, 헌신의 삶이었다. 16살의 할머니는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미신을 섬기고 고통을 해왔던 집안에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당신의 어머니(나의 외증조할머니)가 위급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을 당시 집안의 귀신 단지와 부적을 전부 불태운 일이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냉면집을 하시던 외증조할머니가 교회에 나가시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은 그달의 수입을 단 한 푼도 떼지 않고 전부 다 헌금하신 일이라고 한다.

할머니가 중학교 2학년 때 민족 최대의 아픔과 비극인 6·25전쟁이 일어났다. 고향을 뒤로한 채 거제도를 거쳐 부산에서 피난 생활을 시작하신 할머니는 자신의 학업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도와 떡 장사를 하며 어린 동생들을 자식처럼 돌보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힘쓰셨다. 힘든 피난 생활에서도 교회 성가대 봉사를 하며 찬양으로 몸과 마음의 고달픔을 달래셨다. 삶의 터전을 서울로 옮기고 지금의 오장동 함흥 냉면집 자리에서 냉면 장사를 시작하신 당신

의 어머니를 도와 새벽에 일어나 샫국수를 누르며 온종일 말없이 일만 하신 할머니, 그 모습에 반해 외할아버지는 할머니와 결혼하셨다고 한다.

14년간 중풍 환자로 계시던 시어머니를 위해 기도하셨던 할머니의 기도 결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 7번이나 반복된 외할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많은 빚을 졌지만, 약속한 날에는 그 금액에 못 미치더라도 꼬박꼬박 돈을 갚아 나중에는 돈을 꾸어준 분들이 감탄할 정도였다고 한다. 생계를 위해 평화시장에서 옷 장사와 일수계 일을 하면서 할머니는 언제나 기도하셨다고 한다. “하나님! 제가 이 가정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돈을 좇는 자들이 되지 말고 일을 좇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할머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 수 있도록 스스로 본을 보이는 삶을 사셨다. 외할아버지는 당시 병명을 알 수 없었던 불치병(지금의 루게릭병으로 추측된다)으로 3년간 투병하시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할머니의 인생은 누가 봐도 결코 연약한 여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끝내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내고 자녀들에게 ‘삶이 곧 믿음’이라는 유산을 남기셨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힘과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이며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였다.

정신없이 쏜살갈게 지나간 3일, 역경의 세월을 건디어 오신 할머니 세대의 고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날의 우리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 시대의 암울함과 어려움을 겪어 보지 못했기에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며 은공을 잇을 때가 많지만, 삶이 믿음이며 믿음이 곧 삶인 할머니의 헌신적이셨던 일생을 보며 자란 엄마의 자식으로서 나 또한 삶 자체가 믿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입관할 때 엄마가 할머니의 얼굴을 만지며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엄마, 안녕히 가세요”, 나는 이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할머니의 마지막 얼굴은 참 평안해 보이고 사랑스러웠다. 가족 누군가에게겐 호랑이처럼 무서웠던 할머니, 누군가에게 그저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할머니, 누군가 나에게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외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위대한 삶을 사신 할머니, 이제 하나님 곁 하늘나라 천국에서 아프지 말고 평안하게 사세요. 감사하고 사랑해요. **만남**

진정 아름다운 인생은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남을 위해 헌신하는 예수님을 닮은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할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복의 근원이며 축복의 통로였다.



## 사랑을 주러 갔다 도리어 넘치게 받았습니다

2014년, 교회 마당을 지나갈 때면 휠체어를 힘차게 밀며 예배당에 들어가던 학생과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던 사랑부. 그해 사랑부 여름 수련회를 친구와 함께 다녀온 여동생의 추천으로 사랑부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사랑부 예배에 처음 참여했던 날이 생생합니다.

그날 아침, 마치 데이트를 나갈 때처럼 말끔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하고, 사랑부 예배실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론 많이 긴장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특히나 호기심 많은 학생들이 힐끔힐끔 뒤를 돌아보며 저를 살폈습니다. 행여 눈이 마주치면 씩 웃어 주었습니다.

예배 전, 찬양 시간에 흥겹게 찬양할 때였습니다. 성경의 다윗의 모습이 이랬을까요? 타인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기쁨으로 일어나 춤도 추고 율동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자유롭고 순수하다 느끼며 저도 같이 웃으며 즐겁게 찬양했습니다. 설교 시간은 사랑부 학생들의 다양한 나이(유소년부터 50대 성인 학생까지)와 눈높이를 맞춘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광고 시간, 새 선생님 소개 순서에 앞으로 인사하러 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이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다들 웃는 얼굴로 축복송을 불러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라며 팔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대환영해주는데, 마

음에 훈훈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랑부와 함께해 왔습니다. 학생들에게 사랑을 주러 갔다 도리어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으며, 이전에는 어색했던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루는 직장 생활에 치여서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는데 문득 ‘아, 사랑부 학생들은 비록 외적으로 볼 때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내면은 너무나 순수하고 사랑으로 넘치는 반면 나는 외적으로는 정상일지 모르나 내면 상태는 상해 있고 때론 썩어 냄새나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했고 지쳐있던 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처럼, 너무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챙겨주신 사랑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사랑부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많은 기도와 귀한 섬김이 있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제주도인데, 사랑하는 사랑부 지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하나님 창조의 아름다움을 흠뻑 만끽한 시간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김녕해수욕장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이 자리에서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모난 부분이 많은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챙겨주신 사랑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다운중후군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시간이 흘러 지금은 초등학교 고학년 나이가 되었습니다. 말도 어눌하여 의사 표현만 할 수 있고, 신변처리도 어렵습니다. 이 친구가 버스에서 김녕 바다가 보이는 순간부터 창문을 통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가기 전 준비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을 못 참고 누구보다 먼저 물에 풍덩 들어갔습니다. 저는 함께 물장구도 치고 물에 둥둥 떠다니며 뱃놀이하듯 함께 놀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형 탈모가 있고, 기분 좋을 때만 웃을 뿐 평상시에는 잘 웃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닷물 속에서 놀던 그 시간은 세상 누구보다 해맑게 웃고 있었고 신나했습니다.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린 채 그 누구보다 해맑고 즐겁게 놀았던 좋은 장소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예배 전 등그렇게 모여서 눈물 흘리며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하여 울부짖으며 통성기도하시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선생님들과 교역자분들의 얼굴과 이름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분들께서 '기도와 섬김'으로 저의 신앙의 초석을 세우심으로 현재의 저와 지금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영락교회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로 기도하고 섬김의 사역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는 항상 섬겨야 할 자리는 많지만 섬기는 이는 적은 것 같습니다. 사랑부와 다양한 교육 부서를 위해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르심을 받는 분들은 순종하여 참여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남**

백한빛 성도 \_ 강북·도봉교구, 사랑부 교사



## 그것은 낭비가 아니다

일본 요코하마에 대형 크루즈선이 10여 일간 정박해 있었다. ‘코로나 19’ 때문에. 10여 일 만에 미국은 자국 비행기로 승객 380여 명을 모두 데려갔다. 도착지에서 또 14일간 격리되어야 한다. 그러자 젊은 아가씨 같은 여인이 온 얼굴을 감싸 쥐고서 평평 운다. “14일간 또 격리한다고! 내 인생 한 달이 날아간다고요!” 통곡에 가까운 울음이다.

“인생 80에 비하면 한 달은 아무 것도 아닌데…” 하다가 이해한다. 노년의 한 달보다 청춘인 그녀의 한 달은 길고 길게 느껴지겠지…. 남아공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살았다. 출감 후 그는 남아공 대통령이 되어 포용 정책으로 링컨 버금가게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남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세월이 꼭 낭비일까? 갇힌 생활은 바깥세상의 평온한 삶보다 내면이 자라는 인내, 성숙의 시기. 하긴 열 번 감옥 갔다 와도 똑같고, 더 나빠진 경우도 있지만. 그녀가 격리돼 있는 동안 세계 어느 여행지에서도 못 본 자아와 본질, 영원한 삶과 대면하길 바란다. **만남**

- 기일혜 수필집 41 중에서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가끔 주일 예배 마지막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430장)을 찬송할 때가 있다.

그 찬송으로 예배를 마칠 때는 유독 세상을 향해 다  
시 나가는 발걸음이 힘이 나고 찬송하는 내 마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항상 경  
험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 얼마나 힘이 나고 즐거운 일인가!

나 혼자 세상을 헤쳐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았으  
면 이름 모를 야생화, 하늘의 구름이 그렇게 예뻐 보  
이지만은 않았을 것 같다.

힘들고 앞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  
을 때, 그때도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함께 걸어주시  
지 않았다면 나는 그 고난을 잘 견뎌내기 어려웠으  
리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  
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

께 가시며…”(신 31:6) 이렇게 굳은 약속으로 지금  
까지 동행하고 인도해주신 주님.

“예수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창 5:24)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려 올라간 예수가  
나의 평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길 늘 기  
도한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림이라는 달란트를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이다. 작품  
소재는 참으로 다양하지만, 특히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그림으로 그리길 좋아한  
다. 강변을 걸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  
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고백하는 나의 마음을 아  
시고 동행해 주시는 주님께 나지막이 고백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만남**

## 갈릴리, 예수님이 공생애 많은 시간을 보내신 곳



갈릴리 호수 팔복교회 언덕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을 떠올리자면 어쩌면 제일 먼저 갈릴리(The Sea of Galilee)가 아닐까 생각한다. 잠시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도 갈릴리였던 것 같다. 그 갈릴리를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소개한다.



최승도 목사  
중구·용산교구  
제자양육훈련부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50km 떨어져 있으며 해저 210m에 위치한 담수호다. 그 길이가 직경으로 남북을 가로지르면 21km, 동서 13km, 평균 수심 44m, 둘레는 무려 50km이다. 갈릴리 호수의 면적은 170km<sup>2</sup>이며, 최고 수심이 200m에 이른다. 하프처럼 생겼다고 해서 하프를 뜻하는 히브리어 ‘키노르’(kinnor)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긴네렛(민 34:11), 긴네롯(수 12:3), 게네사렛(눅 5:1)은 히브리어와 어원을 같이하고, 후에 다른 표현으로 디베랴(요 6:1), 갈릴리(마 4:18)와 같이 불렸다.

갈릴리의 수원은 북쪽의 헬몬산(헬몬산·만년설로 유명하다)과 레바논 세네강이다.

헬몬산의 눈 녹은 물이 단과 가이사라 빌립보로 흘러나와 레바논 세네강과 합쳐져 요단강을 이루면서 이 물이 모여 갈릴리 호수를 채운다. 호수 주변은 해발 300m 이상 되는 산들로 둘러싸여 마치 분화구와 같은 모습이다.

히브리어로 바다라는 뜻의 ‘얌’ (Yam)을 앞에 붙여 ‘얌 긴네렛’이라고 부르지만, ‘얌’은 바다라는 뜻 외에도 많은 물이 있는 곳을 가리키기도 한다. 갈릴리에는 약 40여 종의 물고기가 살고 있으며, 물 반 고기 반이라 할 정도로 고기가 많아 고대로부터 어업이 성행했다. 잡은 고기들을 소금에 절여 로마에까지 판매했다고 한다.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기념해 ‘배스’ (Bass)라고 하는 일종의 민물고기를 ‘베드로 고기’라고 부르고 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사역하셨던 곳이다.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던 장소였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신 기록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갈릴리에서의 파도에 관한 기사(마 8:23-27, 막 4:35-41, 눅 8:22-25)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일(마 14:24-25)이나 파도를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일(마 8:26) 등은 오늘날 갈릴리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갈릴리는 화산 분화구와 같은 형태로 여름은 물론 겨울에도 거의 파도가 일지 않는다. 그러나 겨울에 높은 산 위에서 갑자기 불어 내려오는 찬 바람이 돌풍으로 변해 풍랑이 일어날 때가 있고, 우기인 겨울에 비가 올 때는 반드시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풍랑이 일게 된다. 베드로가 그 풍랑을 보고 바다로 빠져들어 간 것이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는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함께 기독교인에게 중요한 장소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보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은 이곳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느끼게 하며 심신을 쉬게 하는 좋은 장소로 손꼽힌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자신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8:10). 갈릴리 주 위에는 로마의 핍박과 어려운 생활을 피해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곳은 두로왕 히람에게 성전을 짓기 위해 제공받은 나무의 대가로 다른 나라에 땅을 떼어 줄 만큼 정치적으로 소외당한 지역이었지만, 물이 있고 농작물 재배가 가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곳이었다. 기원후 1세기의 유대인 랍비 요한난 벤 사카이는 이곳에 살던 사람들을 “율법을 증오하는 무리”라고 멸시하며 종교적으로 소외시켰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가리켜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요 7:49),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요 7:52)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에서 공생애의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 갈릴리의 여러 가지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어지는 다양한 비유의 소재와 풍부한 감성과 애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으며, 억압받고 쫓겨 다니며 멸시받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 주시길 원하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이곳을 오가는 많은 이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복음은 급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된다. 히브리어로 ‘굴러가다’라는 말을 ‘갈(Gal)’이라 한다. 물결이 마치 바위가 굴러가듯 해변으로 밀려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래 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로 굴러오는 듯한 느낌을 잊을 수가 없다. 갈릴리가, 바위가 굴러간다는 의미인 것을 생각하며 지금 이 시각에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복음이 영락교회를 통해 전 세계로 힘차게 굴러갈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만남**



##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관심과 부담이 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 ‘제자도’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 찰스 스펔전 목사님이 쓰신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한다. 지면에 책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주제와 예화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 책에서는 ‘제자’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자신의 교리적인 의견과 생각 언어와 성품을 형성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 외에 주변 사람들의 성품이나 사생활과 여러 현상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두는데, 저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되묻는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십시오” 강하게 말한다.

그리고 2장에서는 ‘참된 제자가 살아가는 법’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놓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하고 우리에게 소중한 다른 모든 것은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형제자매, 아내와 자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순간이라도 그리스도와 경쟁의 자리에 있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놓는 자는 때로는 사업에서 손해를 볼



찰스 스펔전(Charles Haddon Spurgeon) 지음/  
송용자 옮김 / 터치북스 퍼냄 / 239쪽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순간에 스펔전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부정직한 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저주를 불러올 것입니다. 물질과 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게 찾아온다면 저는 결코 그것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4장 ‘영혼에 빛이 가득할 때’에서는 ‘빛은 눈을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에 빗대어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마음의 눈 상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싶은 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따라 살기 원하는 분 그런 성도는 달 같이 아름답고, 해 같이 맑게,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게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되는 교회는 당당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교회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영웅의 걸음걸이입니다.

- 『예수가 가르친 제자도』 중에서

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빛을 막는 것들에 관해 이야기하는데, 그중 가장 흔한 것이 자신 안에 이미 빛이 있다는 착각이다. 아버지와 조부, 증조부 및 앞선 모든 세대가 신앙 속에서 자랐다면 자신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가족의 등불 일 뿐이라고 말한다. 가족의 등불이 있을 뿐 하나님의 빛은 그 안에 없다.

다음으로는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허용하는 죄는 마치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 백내장과 같다. 사람들은 은 거짓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한다. 복음의 교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윤리가 느슨해지는 것을 허용하고 세상의 관습을 허락한다. 그러면서 뼈아픈 한마디를 한다. “마음의 눈동자가 죄에 찢렸는데 어떻게 그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있겠는가?”

스펠전 목사는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감미로운 빛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고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빛을 얻기 위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빛을 받기만 하면 빛으로 가득한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금 살피보게 되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이나 여건을 핑계 삼아 나태해지거나 예수님 외에 주변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이때 우리의 의견과 생각과 언어와 성품까지 예수님의 본을 따라 행동하고 순종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특히 빛이 어둠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하나님의 빛을 막는 자기 착각과 교만, 자기 영광 등의 죄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겠다.

그래서 영락의 성도들이 이 책의 부제목처럼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본다. **만남**



박재현 목사  
강남교구  
목회행정



## 신자 되기 원합니다(찬송가 463장)

이 찬송의 기원은 흑인영가이다. 흑인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도 교회에 다니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고, 그들도 구원을 받고 싶었지만, 그 구원은 백인 주인들의 것이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사실에 어느 한 노예가 용기를 내어 주인님께 이렇게 간청한다.

(표 518) **신자 되기 원합니다 463**  
 Afro-American Spiritual 보통으로 ♩ 92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되더라 (행 2:41) I WANT TO BE A CHRISTIAN: IRREG. Afro-American Spiritual

1. 신 자 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2. 사 랑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3. 거 록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4. 예 수 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신 자 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사 랑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거 록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예 수 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진 심 으 로

신 자 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사 랑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거 록 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예 수 님 기 원 합 니 다 진 심 으 로 아 멘

제자의 도리

##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in my heart.”

“주인님, 나도 진정으로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여기서 ‘Lord’는 처음에는 백인 주인을 뜻했다. 그러나 이 흑인영가가 찬송가에 실리며 ‘Lord’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었고, 우리가 진심으로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게 된 것이다. 이 찬송을 잘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흑인영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흑인들이 서아프리카(지금의 가나, 세네갈, 기니, 잠비아,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토고,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봉, 그리고 콩고와 자이레의 일부)로부터 미국에 노예로 팔려오기 시작한 것은 1526년경부터이다. 포르투갈 사람들에 의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South Carolina)에 거주하게 된 흑인들은 1700년경에는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의 상인들에 의해 팔려왔는데, 1450년부터 1900년까지 거래가 성사된 1,100만의 아프리카인들 가운데 30% 이상이 운송 도중 사망하고 450만~800만, 14~30세 사이의 젊은 흑인들만이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해의 섬들로 왔다. 1790년 미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체 400만 인구 중 흑인이 69만 7,624명이었고, 1860년 조사에 의하면 약 400만의 아프리카 노예

들이 등록되었다고 한다.

미국으로 팔려온 후 차별과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노예들은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때 까지도 흑인들은 대부분 여전히 해와 달과 같은 아프리카 고유의 신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은 기독교를 가혹하고도 잔인한 종교라고 여겼고, 자신들의 종교적 가치와도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노예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가장 잔혹한 주인’이라고 인용되기도 했다. 기독교가 전파되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백인들 때문이었다. 기독교는 자유와 평등의 종교, 해방의 종교였기 때문에 백인들은 흑인들에게 그러한 사상이 심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언제나 떨쳐 버릴 수 없었다. 오히려 백인들은 기독교의 교리를 흑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이용했다(예: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나 흑인들을 향한 미국 내 뜻있는 백인 선교사들의 활동과 1740~1830년까지의 미국의 1, 2차 대각성 운동 등으로 인해 복음이 흑인들에게도 열리기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비록 흑인들이 백인들의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



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최초의 흑인 교회는 1750~1777년 사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실버 블러프(Silver Bluff)에 설립된 침례교회이다. 노예로 팔려온 지 200년이 넘어서이다.

백인 목회자들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과 인내를 가르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로써 노예들에게 기독교는 급속히 전파되었고, 이와 더불어 자연스레 음악도 탄생하게 된 것이다. 영어에 서툴렀던 노예들은 노예가 되기 전 서아프리카에서 부르며 계승해 온 민속 음악의 선율에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흑인영가의 시작이다. 이것은 노예로서 그들이 만들어낸 '공동체의 음악'이었는데, 가혹한 노예 생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 노예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위법이었기 때문에 글을 배우지 못했던 그들에게 성경 대신 노래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것이 아프리카-미국(African-America) 민속음악의 시작이었으며 이 음악은 훗날 가스펠과 결부된다.

한편,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하고, 이와 맞물려 1775년에서 1783년 사이 미 연합국과 영국 사이에 미국 독립전쟁이 벌어진다.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미 연합군은 1776년 조지 워싱턴이 흑인들을 병력으로 사용하고자 흑인들에게 전쟁참여 조건으로 전쟁 후 자유를 약속했다. 전쟁승리 후 1808년 유럽으로부터의 노예 수입금지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산업화가 많이 이루어진 북쪽 주(州)들은 흑인 수입금지 법안을 찬성했지만, 농업을 주로 하는 남쪽 주들은 일손의 절대적 부족으로 반대했다. 이는 남과 북의 대립으로 이어졌고, 1860년 링컨 대통령 당선 후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1865년 북군의 승리로 남북전쟁이 끝나고, 링컨은 노예



금지법을 발의해 마침내 미국 내의 모든 노예가 자유로워진다. 그 후 대학과 같은 흑인 교육기관이 설립되기도 하고, 북부지방의 자유로워진 노예들의 일부는 뉴욕에서 극장(African Grove Theatre)을 설립해 흑인음악, 바이올린, 피아노 등을 연주하며 생활했다. 여기서 연주되던 음악이 노예 생활 때 불렀던 흑인영가, 블루스, 래그타임 등 재즈의 전신이 된 여러 장르인데, 흑인영가 풍의 현대 성가에 크게 영향을 미쳐 현재 교회 찬양대에서도 즐겨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흑인영가의 구체적인 특징에 관하여는 9월호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만남**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자



## 교회소식

## news letter

## 중구 관내 어르신들 위해 ‘실버카’ 300대 전달

- 교회창립 7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이웃사랑 실천



우리 교회는 지난 5월 28일(목) 오전 10시 중구청 내 구청장실에서 김운성 위임목사와 당회원들, 서양호 중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구 관내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행을 돕기 위한 실버카 300대를 기부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1대당 20만원 상당인 실버카는 바퀴가 달려있어 걸음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몸을 의지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 보행기구로 의자 형태로도 되어 있어 이동 중 휴식을 취할 때도 요긴하게 사용된다.

이번 실버카 지원은 교회창립 75주년을 맞아 이웃섬김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전달된 실버카는 중구 관내 주민센터와 복지관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운성 목사는 “영락교회가 위치한 중구 지역이 화려하고 높은 빌딩으로 가득해도 사실 골목골목 가난한 도시민민들의 어려운 삶이 있다”면서 “교회가 그들을 더 살뜰하게 보듬어 살피야 하는 책임이 있고, 앞으로도 교회가 할 일이며 이번 실버카 기증도 그러한 걸음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배석한 교회창립 75주년기념사업위원회(위원장 차재능 장로) 위원들은 “창립 75주년을 맞아 여러 행사를 준비했지만 코로나19로 차질이 빚어져 아쉬웠는데 이번에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감사의 인사를 덧붙였다.

전달식을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서양호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기부활동을 펼친 교회 측에 감사를 표했고, 교회 주변 미화환경 개선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는 등 교회와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사회봉사부(부장 나선환 장로)를 통해 중구 관내 저소득층 가정에 매년 김치와 라면 등 각종 물품들을 꾸준히 후원해왔고 지금까지 집계된 누적 후원금만 2억 8763만원에 이른다.

제공 사회봉사부 사진 한국기독교공보

##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예배 드려

한국교회총연합 주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주관으로 6·25 한국전쟁과 손양원 목사 순교 70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6월 18일(목) 오후 5시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문수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의 인도로 김운석 목사(한교총 상임회장)기도, 영락교회 중창단 특송에 이어 이성희 목사(예장통합 증경총회장)가 ‘승리자 그리스도’(고전 15:55~58)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어진 특별기도회에서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허락하소서’, ‘손양원 목사의 순교정신을 본받게 하소서’의 주제로 간구했다.

2부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는 김태영 목사(예장통합 총회장)의 사회로 김운성 위임목사의 환영인사, 손양원 목사 약사 및 경과보고, 기념사, 특송에 이어 김명혁 박사(강변교회 원로목사)가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6.25 한국전쟁, 그리고 남과 북...’의 주제로 한 성명서 발표, 손 목사님의 외손자인 박유신 목사의 감사 인사에 이어 ‘민족의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기도’를 드리며 기념식을 마쳤다. 이날 베다니광장에선 ‘순교자 손양원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 선교대회 본당에서 열려



서울노회 여전도회연합회는 지난 6월 11일(목) 우리 교회 본당에서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시102:22)를 주제로 제39차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개회예배는 현정임 회장의 인도로 이미숙 부회장 기도, 연합찬양단의 특송, 그리고 김운성 위임목사의 ‘잠잠할 자, 외칠 자’(눅 4:31-37)제하의 설교와 축도로 이어졌다.

2부 특강에선 강사 허원구 총장(부산 장신대)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를 주제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선교가 되게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42대 회장으로 추대된 현정임 장로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선교 여성이 되자”며 대회사로 감사함을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7월 목회력

6월 29일(월)~7월 4일(토)	하반기맞이 특별새벽기도회
5일(주일)	유아세례
12일(주일)	제직회
26일(주일)	심방준비회, 사회봉사주일
29일(수)~31일(금)	산상기도회 1차

※ 7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알림

• 사정상 「만남 웹진」에는 당분간 「만남」 내용의 일부가 원본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자양육훈련 2단계 핵심과정(5개 과목) 온라인교육



제자양육훈련부(부장 양인성 장로)는 우리 교회 장년 신앙교육의 필수과정으로 2019년 3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32주간(1~4분기)에 걸쳐 2단계 핵심과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핵심과정 교육은 코로나 사태로 휴강되었고, 2분기부터는 온라인 교육(8주: 5월 17일~7월 5일)으로 5개 과목(성경 성령 예배 기도 전도)에 대한 핵심과정이 개설되었다.

테스트버전이기에 부득이 제한된 인원으로 시행된 이번 교육은 제직후보교육을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시행된 온라인 교육으로 교육충실도를 기하기 위해 매주 40분 교육을 20분씩 2회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3분기부터는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지만, 코로나 사태에 따라서는 오프라인 교육이 어렵게 될 수도 있기에 추이를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는 핵심과정 온라인 교육의 모든 수강관리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과제물 제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육충실도를 높이고, 한 과목당 수강인원을 확대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도드리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공 제자양육훈련부

## 편집장 레터

20세기 초 미국의 무신론 소설가 드라이저(Theodore Dreiser)는 모든 종교를 ‘동화(童話)’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남을 위하여 일하라’는 위대한 원칙만은 높이 평가했습니다.

기쁨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기쁨은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만들어지며, 다른 사람의 기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 그를 기쁘게 했을 때 나는 더욱 기쁘고 행복해 집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봉사활동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셨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희생이 아니라 봉사에 의한 기쁨입니다. 사람됨은 학벌이나 간판, 재물이나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일했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인류에게 기쁨을 준 수많은 위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은 주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또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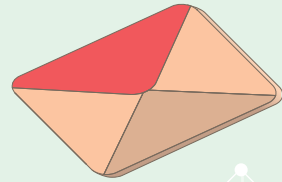
다. 그러나 그분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모방할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때문에 위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고통에는 인류구원의 영원한 기쁨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주는(授) 기쁨은 영적 기쁨이요, 받(受) 기쁨은 잠깐의 육체적 기쁨입니다.

자만과 자존심을 버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사회적 실체가 어떠한 지금도 많은 봉사자가 이곳저곳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힘써 봉사하고 있는 그들은 나를 기쁘게 합니다. 나 또한 그들과 동참하여 이웃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7월 『만남』도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편집진들의 얼굴은 맑고 화려했습니다. 『만남』이 주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서 맑고 기쁜 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육 간 항상 강건하세요!

편집장 이동훈



2020년 7월호 통권 558호

발행 2020. 7.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정경섭

편집위원 이동훈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혁태 나광호 우대권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편집회사 도인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지난호 정답 숫자 퀴즈

세번째 문제 (창세기 7:12)  
출제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몇 일동안 무교병을 먹을까요? (신명기 16:4)	7	일
● 이스라엘의 지파는 모두 몇 지파였을까요? (창 49:28)	12	지파
● 노아 사택에 비는 몇 일동안 내렸을까요? (창 7:24)	40	일
●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오른 해는?	2002	년
● 다윗은 아셀의 몇째 아들일까요? (대상 2:15)	7	번째
●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의 나이는? (출 7:7)	80	세
●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은 1년이 몇일일까요?	366	일
● 예르모는 달이 몇 번 돌 때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마 26:34)	3	번
●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식 명칭은 COVID..	19	
● 백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백월미 역은 남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마 6:44)	5000	명
● 4월 15일에 치러진 선거는 몇 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을까요?	21	대
■ 위의 수를 다 합한 숫자는 몇일까요?™	7557	



# 윤진경의 함께해보아요

## 숨은그림찾기

이 코너는 영락의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놀이로 구성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고, 바이러스 없이 자유롭게 정을 나누는 행복한 날이 어서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림 속에는 7개의 그림이 숨어있어요. 함께 찾아보세요~

(자, 연필, 동백꽃, 삼각자, 팬이, 복주머니, 지팡이)



영락화랑

##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양희, 한지/수묵담채, 53×45.5cm, 2019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창 5:24)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들러 올라간 에녹같이  
나의 평생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가길 늘 기도한다.